

# 시마무라 · 정수진 · 왕제원 논문에 대한 토론

야마 요시유키

번역: 김 현정

종합토론의 토론자 관서학원대학의 야마 요시유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3부에서 발표하신 세분의 연구 보고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마무라 선생님의 발표는 ‘민속학’이 성립한 세계사적 배경으로부터 민속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거시적인 시야에서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전 파리에서 지냈습니다. 마침 그해 크리스마스 때 시마무라 선생님이 파리에 오셨습니다. 중년 남성 두 사람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민속학에 대해 토론하면서 크리스마스 밤을 보낸 셈입니다(웃음). 실은 그곳은 파리 대학 부근의 ‘카르티에 라틴’(Quartier latin)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번역하자면 ‘라틴어 지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라틴어로 이야기를 나누던 지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정통 언어(문자 언어), 학술 언어인 라틴어로 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학생들이 출신지나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는 ‘속어’ 즉 버내쿨러(vernacular) 언어였던 것입니다. 시마무라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민속학’ 성립의 배경에는 정통 언어(문자 언어)에 대항하는 듯한 자연어 의식과 이에 따른 자문화, 자국에 대한 의식의 고양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토오리 노리나가 등에 의한 국학 운동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야나기타 구니오와 일본 민속학에 대해 모토오리 노리나가 등의 국학이 영향을 끼쳤음이 지적되는 것도 세계사적 배경에서 보자면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 시마무라 선생님은 ‘사회변동론’과 ‘생세계’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변동’을 파악하는 시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생세계’를 당사자와 연구자 사이의 협동을 통해 ‘내재적으로 고찰’한다고 하셨는데 ‘변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재적-외재적인 고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연구자가 당사자의 ‘생세계’의 외부 시간적 기준으로 파악한 ‘변동’과 당사자가 ‘생세계’의 내부에서 파악한 ‘변동’ 모두를 시야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결국 연구자가 당사자의 ‘생세계’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클로어’에서 ‘버내쿨러’로의 용어 변경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버내쿨러’ 개념의 타당성, ‘포클로어’라는 단어에 응착되어 있는 의미 작용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전 이 점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만일 그러하다고 한다면 ‘민속’이라는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작용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수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입니다.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로 유명한 르페브르의 공간론을 통해 일상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르페브르 논의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확인해보면 자본주의와 이를 배경으로 한 도시정책에 의해 도시 중심부에서 교외로 사람들이 소외되게 되어 본디 사람들이 평등하게 향수해야 할 도시에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도시 사람들의 차이(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람들의 평등과 자유라는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주장=운동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발표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우선 이러한 르페브르의 논의를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또 한국(혹은 일본, 중국)의 일상 연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로컬리티’라는 시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일상’ 개념을 공간론적으로 다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표상,’ ‘표상의 공간,’ ‘공간적 실천’(이들은 이념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이라는 공간 생산의 3차원적 변증법에 대해 ‘로컬리티’라는 시점을 매개로 삼아 ‘일상’ 개념을 공간적 실천의 장으로 접속시키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적 실천의 저편에는 ‘차이의 공간’과 ‘자유’에 대한 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정반대라고도 보이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신 후 선생님과 왕 선생님과 같은 중국 민속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앞으로 논의해갈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왕제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정 선생님이 제시하신 공간론적 관점에 대해 중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간의 문법학’에 대해 ‘공간의 문체학’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나 통행인을 다루신 ‘공간의 수사법’이라는 표현 등 공간을 언어의 메타포나 텍스트로 보는 논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셀토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틀을 ‘편의적’으로 참조하여 ‘길가 경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편의적’이라고 한 것은 셀토의 논의가 배경으로 삼는 프랑스와 중국이 그 체제가 서로 다르고 ‘공공’이라는 개념도 다르다는 점을 왕 선생님은 명확히 인식한 후에 셀토의 논의를 참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의 전개방식은 중국에서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교차되면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언하자면 ‘일상’을 ‘서구’에서 보느냐 아니면 ‘중국’에서 보느냐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의 후 선생님의 발표에서 다른 ‘일상 개념의 중국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짚어본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에서는 “‘일상’ 개념의 이중성”이라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즉 이념적·방법적 개념과 구체적·현실적 개념이 ‘일상’ 개념 속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일상’ 개념에만 의거한다면 사변적 논의로 그칠 것이며 후자에 의거한다면 사례 수집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의 시점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상’ 개념의 존재적·존재론적 파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일상’ 개념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는 민속학의 영위는 이 이중성 사이를 왕복하는 지극한 긴장감을 동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요컨대 이념의 실천, 즉 ‘사람들의 생세계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시마무라 선생님의 발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개념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는 한 이 이중성을 조정하는 작업은 불가피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의해 각각의 민속학적 입장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